

Studies in Theology

Vol. I

Table of Contents

Forward Sang Dong Han, D. D.
 President of Korea Theological Seminary

The Primitive History in the Book of Genesis
 Ban Sik Hong, Ph. D.
 Professor of Old Testament

The Social Life of the Hebrews
 P. S. Oh, Th. D.
 Professor of Biblical Theology

The Necessity of Calvinistic Theology
 Kum Sam Lee, Th. D.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WHAF Is Myth Theodore Hard, Th. M.
 Assistant Professor of Theology

Proofreader H. K. Shin

Published by
 Korea Theological Seminary
 Pusan, Korea

多 勇 元

神
學
研
究

神 學 研 究

第 一 輯

△ 第一輯 ▽

高麗神學校發行

高麗神學校 發行

神學研究

第一輯

高麗神學校 發行

序 文

保守主義 神學 論文集이 나온다는 것은 教界에 기쁜 소식이고, 神學界에 있어서도 값진 業績이 아닐 수 없다. 自由主義 神學 書籍들이 氾濫한 이땅의 教界出版界에 이 한 권의 論文集은 분명히 이 땅에 保守主義 神學이 살아 있다는 生命의 躍動을 또한번 보여주는 動機가 되는 것이다.

巷間에서는 왜 保守主義 神學者들은 글을 쓰지 못하는가 고 비난 하는듯한 푸념을 터트린다는 소리를 듣는다. 기실 保守主義 神學者들이 글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쓰지 않는 바도 아니다. 다만 陳腐한 이 땅의 出版界가 그들의 글을 容納해 주지 않기 때문에 책으로 出刊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 나라 수 많은 出版社는 保守主義 神學者들의 글을 讀者가 적다는 理由로 出版을 해 주지 않는다. 保守主義 神學者들의 글을 읽어 줄 讀者가 적다니 무슨 말인가? 그 理由를 그들은 두 가지로 말 한다.

첫째는 글을 읽는 사람은 自由主義 진영 사람들 뿐이고 保守진영 사람들은 통히 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自由主義 神學者들의 글은 思想에 變遷이 많고 색다른 思想이 계속 展開되기 때문에 時代感覺에 맞아서 讀者들에게 호감을 주지만 保守主義 神學者들의 글은 聖經 中心에서 떠나지 않으려 애쓰므로 새로운 思想도 새로운 思考도 없이 時代에 뒤떨어진 소리들만 하기 때문에 讀者들을 많이 얻지 못 한다고 말을 한다.

우리는 위의 말들에서 생각할 問題가 있다고 기억한다.

첫째, 保守主義 진영 사람들은 왜 글을 읽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심각 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반성할 바라고 본다.

그 時代를 살아갈려면 그 時代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自由主

義와 新神學을 대항한다고 말은 하면서 그들의 信仰 思想을 몰라 가지코야 되겠는가? 그들의 信仰 思想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글도 많이 읽어야 하겠다. 그리고 保守主義 神學者들의 글이면 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學者들이 글을 쓰는 데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도우는 의미에서 그들의 책을 많이 사서 소개도 하며 읽어야 할 것이다.

둘째, 保守主義 神學者들의 글은 聖經中心이라니 얼마나 든든한 말인가? 새로운 思想, 새로운 思考가 없어도 좋다. 時代에 뒤떨어졌다 해도 좋다. 聖經 中心이면 全部인 것이다. 事故는 새로운 思想을 찾는 데서 일어난다. 하나님은 人生을 대하실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同一한 方法으로 대하신다. 原始時代 人生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石器時代에도 鐵器時代에도 심지어 宇宙時代에 살고 있는 現代人에게도 同一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변한 것은 人生이요, 妖邪스러운 것이 人生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不變하신 것이다. 이 不變하신 하나님의 眞理를 변화되어 가는 人生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만이 保守主義 神學者들의 使命이기에 그 領域을 벗어 나지 않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저런 여러가지 意味에서 今般 우리 神學校 教授들의 論文集이 나가게 되는 것은 뜻있는 일이다. 이제 남은 問題는 이 책을 많은 讀者들이 사서 읽어주는 일이다 책은 읽히기 위해서 出版이 되는 것이지 出版되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하여 出版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나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苦心을 했다. 영영 出刊되지 못할 것 같기도 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出刊하게 되니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이 책이 出版되는 것을 契機로 계속 第2卷 第3卷이 나갈 수 있기를 또한 期待해 본다. 끝으로 이 論文集이 나오기 까지 여러 가지로 協調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백분들께 감사하는 바이다.

高麗神學校

1969年 12月13日

校長 韓 尙 東

一 目 次 一

서 문 신학박사 한상동 (1)

창세기의 원시 역사 철학박사 홍반식 (7)

서 문

I. 천지 창조

II. 홍수

III. 人種分布와 列國의 始作

히브리 사람들의 사회생활 신학박사 오병세 (51)

I. 社會 一員으로서의 人間

II. 社會의 怪異한 事件들

개혁주의 기독교 철학의 필요성 ... 신학박사 이근삼 (71)

I. 문제 점

II. 哲學과 宗教

III. 哲學과 一般 信者

IV. 哲學과 聖經

V. 哲學과 日常經驗

VI. 哲學의 出發點과 그 方向

VII. 哲學과 實在의 意義 性格

VIII. 哲學에 있어서의 反位

NHAF IS MYTH 신학석사 하도레 (101)

특히 古考學으로 창세기 11:2의 바벨탑을 쌓았던 지방인 신알의 위치가 거의 확실하여 졌다. 창세기 10:10에 언급된 신알 평지의 한 지방으로 볼 수 있는 에렉은 현대 古考學에서 발굴하여 4000 B.C. 以前 인류 문명의 자취를 찾은 우룩(Uruk)임이 입증되었다³⁵⁾. 이 Uruk 근처에서 오랜 옛날에 만든 것으로 생각되는 탑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이 탑들의 명칭이 바벨론 語로는 지구라트(Ziggurat)이다. 지구라트의 꼭대기에 신당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아랍들이 단순히 인간의 거주를 위한 것도 아니요, 전쟁을 위한 요새 要塞도 아니라 종교적인 건조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학자가 적지 않다.

창세기 11:1에 方言의 혼돈이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본래 인간의 言語가 하나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사과 에카트 우메바림 아카디」은 한 입술 한 말들이란 말인데 言語의 單一性을 증거한다. 인간이 본래 노아의 한 식구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면 한 言語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타당한 이치일 것이다. 言語의 혼돈전에 노아의 가족이나 그 후손들이 사용한 언어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다. 학자들 중에는 인류의 發祥地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古代語도 셈족 方言에 屬하는 것은 아카어이며 아카語의 前身이 수마리아 方言이니 言語 혼돈 이전에 使用된 言語도 그러한 종류의 方言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言語 혼돈 전의 方言을 정확하게 알아 내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요긴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본래 인간의 言語가 하나이었다가 혼돈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일이다. 現代 語學者들 중에서도 본래 인류의 言語가 하나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A. T. Robertsom은 Alfredo Trombetti씨의 저서 The Unity of the Origion of Language를 인용하면서 원시 방언의 單一性을 지금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Max Mueller 역시 Science of Language란 저서를 통하여 原始 方言의 單一性을 말하였다.

35) R. K. Harrison, A. History of Old Testament Time p. -27.

히브리 사람들의 社會 生活

—創世記를 中心하여—

〈목 차〉

- I. 社會 一員으로서의 人間
- II. 社會의 怪異한 事件들

I. 社會 一員으로서의 人間

創世記 1章의 創造기사에 나타난 “사람”(adam)이란 말은 集合名詞로 使用되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adam)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창 1:27)¹⁾고 하는 성경 말씀에 잘 밝혀져 있다. 特別히, 히브리語에 依하면, “사람”이라고 번역된 “아담”(adam)이란 말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뜻을 內包하고 있다.

첫째는, 一般名詞로서 “사람”이란 뜻인데, 마치 獨逸語의 Mensch와 같은 뜻이다. 둘째는, 集合名詞로서 “人類”(Menschheit)를 뜻하며 셋째는, 冠詞를 가진 固有名詞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 “아담”을 뜻한다²⁾.

이와 같이 사람(adam)이란 말이 創世記에 무려 54회나 나오는데 그 가운데 21회는 集合名詞의 뜻으로서 人類를 가르키고 있는 것처럼 “나무”(etch)란 말도 역시, “한 그루의 나무”(2:9, 3:22~24, 18:4~8)를 뜻하기도 하며, 集合名詞로서, “나무들”(1:11·12·29, 2:16, 3:1·2·8)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밖에도 普通名詞이면서 集合名詞로 使用되는 말들이 있는데 “사람”(ish 32:6, 33:1), “영혼”, “개인”, “개인들”로 번역되는 말(nephesh, 14:21,

- 1) 이하 창세기의 성구는 책명없이 기록한다.
- 2) E. Lnsier, “Adam in Genesis 1:1~4:24”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X V III, April, 1956, 137-38.

46:15·18·22·25·26·27) 등이 바로 그것이며 “마음, 심장, 意志, 속사람”으로 번역되는 말(leb 또는 lebab)의 경우도 이와 같은 예이다.

이제 그 實例를 찾아 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의 두 使者를 가리켜서, “당신들의 마음”이라고 하였으며(18:5),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臨終時에 요셉에게 말할 때, 二人稱 複數로 말하던 것이 單數로 쉽게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다(48:21~22). 이것은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을 한 單位나 한 그루우프로 보고 한 말이며, 처음 것은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고, 나중 것은 요셉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말투는 特異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古代 民族들 가운데 흔히 있었던 말투이다. 創世記 9장에도 함이 노아가 술에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별거뵈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노아의 저주가 함에게 임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임한 것을 보면, 물론 이 저주가 가나안에게 내려간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함이 노아의 祝福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보면, 가나안을 향한 노아의 저주 속에 함을 향한 저주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事實은 우리에게 家族 概念이 洪水 以後에는 한 單位로 취급된 사실과 密接한 關聯이 있음을 알려 준다.

그러므로 히브리 族長의 歷史는 우리에게 家族은 모든 人間 活動에 있어서 基本이 되는 單位이며, 家族 相互間에는 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一般의으로 各 族長들은 二代 내지 三代의 家族을 거느리고 있었다. 메라가 하단으로 향했을 때에 그는 相當히 늙었지만 그의 아들 아브람과 손자 롯을 데리고 간 사실을 알 수 있다(11:21). 롯은 獨自의으로 하란에 머무를 수 있을만큼 장성했었으나, 삼촌 아브람을 따라서, 가나안 땅(12:5)과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 왔다(13:12). 特히 야곱의 家族을 보면 요셉이 17세 때 그의 형들은 거의 壯丁이었다(37:2). 그러나 장성한 이 열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三代가 같이 가나안에서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을 서로 나누면서 살다가 애굽에도 함

께 내려간 事實을 알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族長 時代에는 그루우프나, 團體의 概念이 重視되었 으며, 個性은 無視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結婚을 할 때, 신랑이 그의 신부를 擇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家族이 신부를 그에게 골라 준 사실이다(창 2:4). 그 當時는 個人의 自由나 權리가 많은 制限을 받았으며, 비록 個人에 關한 일이라도 家族이나 門中의 決定에 따라야만 했다. 이처럼 個人은 항상 그루우프의 一員이며, 同勞者의 한 사람이요, 同苦者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自己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루우프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行勢해야 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社會의 基本單位인 家族에 屬해 있었으며, 家族은 門中을, 門中은 支派를, 支派는 民族을 이루었다는 事實에서도, 個人보다는 團體가 重要視 되었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으며, 特히 사람의 이름을 볼 때 그 重要性이 더욱 뚜렷하다. 예를 들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9:18·22), “밀가의 아들 부두엘”(24:15·24·27), “아브람의 아내 사래”(12:17, 16:1·3)와 같은 이름에서도 家族間의 긴밀한 關係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사람은 다만 社會의 單位의 一員으로서 存在했다는 사실이 明白히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創世記에 나타난 그루우프 概念의 重要性을 決코 無視할 수 없으나 한편 個人의 位置도 상당히 重要視되었다는 사실을 否認할 수 없다. 고대 히브리 歷史를 살펴 보면, 家族 概念에서 重要 人物들이 尊重된 事實을 찾아 볼 수 있다. 各 家族은 그 家族의 어른인 남편과 아버지를 尊重해 왔으며, 指導者는 전쟁에서 그의 百姓을 善으로 引導해야 했고, 재판관으로서 行使하며 그 밖에 모든 일은 決定해야 할 責任이 있었다. 그러므로, 초기 히브리 歷史를 보면 特異한 指導者에 關한 일 以外는 별로 알려진 사실이 없는 것을” 分明히 알 수 있게 된다.

歷代의 族長들을 보면, 그들은 指導者로서 百姓들에게 尊敬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들이 指導者가 된 것도 그들 각 개인의 特殊

3) E. F. Scott, Men and Society in the New Testament, p. 32

한 性格에 起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루우프나 地域社會를 相對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들을 相對하게 된다. 에녹의 생애는 個性的 生活的 전형적인 본보기이다(5:24). 그의 생애는 같은 시대에 살던 일반 사람들의 凡常한 社會生活과는 달랐던 것이다. 노아도 自己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흠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6:8~9) 그의 家族까지도 洪水에서 救援을 받았던 것이다(8:18~19). 그리고 죄악의 도시 소돔성에서도 個人的 價値는 높이 評價되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만일 그 城에 義人 열 사람만 있었더라도 그 城이 멸망치 않았으리라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城이 滅亡할 때 오직 롯 자신과 그의 두 딸만이 救援을 받았다는 사실은 個人的 價値를 明白히 立證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므로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命令만 따랐더라면 그들과 같이 救援을 받았음이 確實하다(19:17~26). 한편 롯의 정혼한 두 사위들도 自己들 個性대로 事理를 判斷하고 롯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救援을 받지 못한 事實을 알 수 있다(19:14). 이와 같이 에서와 야곱은 다 같이 福된 家庭의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였지만, 그들의 생애와 축복은 아주 달랐던 것이다. 또한 야곱과 그의 子孫들의 생애를 살펴 볼 때도 個性의 問題는 族長 家族에 있어서 強力히 作用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創世記에서 極端의인 集團主義(collectivism)나 個人主義(individualism)의 어느 하나만을 發見했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며, 그 두 가지를 다 發見할 수 있다고 함이 當然하다. H. W. Robinson 교수는 그의 著書 "Record and Revelation" 322페이지에서 "일반적으로 본 고대 思想이나 特殊한 意味의 히브리 思想은 그루우프를 먼저 생각했고, 個人에 關한 생각은 나중에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概念은 共同人格(corporate personality)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말은 흔히 로빈슨(H. Wheeler Robinson) 교수의 이름과 붙어 다닌다. 이와 같이 個人과 그 個人이 屬해 있는 그루우프와의 同一性 概念은 더욱 發展되어서 로빈슨

교수는 이것을 가리켜 "參與의 法"(the Law of participation)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事物과 存在와 現象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들 자체들인 동시에 자체 밖의 것이다……. 集合體에서 個體를 생각하는 동시에 個體에서 集合體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들이 創世記에 나타난 個人的 位置에 對해서 살펴 볼 때. 우선 敬虔과 繁榮은 어디까지나 個人的인 것으로 보인다. 罪惡이 가득찬 世上에서도 에녹과 노아는 그들 자신의 경건한 生活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同行하게 되었으며 아브라함과 요셉은 원수들을 向해서도 自己들의 個性이 顯露했다는 사실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이들에 對한 보상은 會衆으로부터나 대중의 讚美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直接적으로 各 個人에게 임하게 한 것이다. 왜냐 하면, 個人的 全生涯는 하나님의 引導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見解에 對하여 로마교 학자 레프로이스(B. J. Lefrois)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백성(32:28, 37:13), 셈과 셈족(9:27), 야곱의 열두 아들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창 4:9)와의 關係를 同一視 할려고 한다. 勿論 이스라엘의 民族이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의 이름에서 온 것이며, 셈족은 셈에서, 열두 지파는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에게 각각 그 이름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레프로이스의 主張이 옳다면, 만일 그루우프 概念이 適用될 수 없는 문맥들이 어떻게 解決할 것인가? 위에서 말한 사람들이 본물 그 그루우프의 代表者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集合 名詞의 뜻을 너무 지나치게 強調할 必要는 없다. 모든 言語에는 慣用語(idioms)가 있다. 특히 東洋의 言語들은 慣用語가 많기 때문에 集合 名詞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 때는 特殊한 뜻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特

4) H. W. Robinson, the Hebrew Conception of Corporate Personality, "Beiheft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66, 1963, 55-56.

別한 뜻이 없이도 使用되었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一般的으로는 大衆的인 일이기 때문에 家族單位 以上の 範圍에 屬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까지도 大衆的인 儀式으로 돌려버린 사실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항상 集團的인 제물이 있었으면, 個人的인 제물도 있었고 個人的인 感謝와 懇求도 하나님 앞에 가져 왔던 것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家族의 한 사람으로서 혹은 그가 屬해 있는 어떤 그루우프의 一員으로서 살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思考方式은 히브리 사람들의 죽음에 關한 概念에 잘 表現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wayeasaphel ammao, 25:8)고 할 수 있으며, 이스마엘(25:17)과 이삭(35:29)과 야곱(49:29~33)의 죽음도 이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子孫들이 그 祖上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사실도 분명하다(9:24~27). 만일 사람이 自己 個人뿐이라면, 自己 自身の 行動 이외에 責任을 진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個體와 集合體 사이에는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個人과 그가 屬해 있는 그루우프 사이에는 分明히 言約의 關係가 있다는 點을 쾨러(L. Köhler)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言約은 은혜에 關連되어 있으며, 罪人은 滅亡에 있어서 義人을 포함하지 않으나, 義人은 救援에 있어서 罪人들을 包含한다는 이 分明한 事實은 言約의 決코 어떤 비율을 따라 作用하는 것이 아니라 點이다”⁵⁾. 그러므로 노아의 전 가족이 다 義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노아와 같이 救援을 받는 것이다. 소돔 城에 열 사람의 義人이 있었더라면, 惡의 都市 소돔은 救援을 받았으리라고 하지만 惡의 도시 소돔이 롯과 그의 딸들을 함께 滅亡의 자리로 이끌지 못하였던 것처럼, 個人과 그 個人이 사는 社會와의 關係는 하나님의 사랑의 恩惠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지가 보다는 훨씬 더 은혜

5) H. H. Rowley, The Faith of Israel, p. 130.

6) Old Testament Theology, p. 162

의 하나님이지가” 때문이다.

創世記에 나타난 社會的 單位 즉 가족이나 지파는 大端히 緊密한 關係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하나의 組織體로까지 생각하였지만, 實은 그들 각자의 개성을 잃어버린 경우는 없었다. 各階 各層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自然히 統一이란 것이 불가피한 것처럼, 하나님의 形狀으로 創造된 人間은 누구나 그의 이웃의 生活과 繁榮이 自身の 關心事인 동시에 그의 責任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個人的 權利도 認定되었을 뿐 아니라, 各 個人은 하나님과의 個別的인 關聯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個人이 大衆의 斷片이나 일부분일 수는 없었으며, 個人은 어디까지나 個人으로서 存在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大衆과 個人의 關係는 相互 調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創世記에 나타난 사람의 性格에 잘 表現되어 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루우프로서의 存在와 個人 自身으로서의 存在가 서로 均衡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⁹⁾.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創造하신 것이 社會의 基礎가 잘 되었으며, 結婚과 家庭의 始作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作定하신 男女의 聯合인 結婚은 세 가지 目的이 있었다.

첫째는, 도와 주는 짝이 되는 것(2:18)이며,

둘째는, 性的 交際의 對象이 되는 것(2:24),

셋째는, 後孫을 얻는 것(3:16, 4:1)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감에 따라 사람의 이름을 후대에 傳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子孫을 얻는 일이 점차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子女를 얻는 것이 結婚의 唯一한 目的인 것처럼 생각되었다¹⁰⁾. 그러나, 배우자를 求하는 것이 家庭의 일만은 아니었고 個的으로 좋아하는

7) L. Köhler, O. T. Theology, p. 162.

8) H. H. Rowley, The Faith of Israel, p. 122; E. Jacob,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p. 155.

9) H. H. Rowley, The Re-Discovery of the Old Testament, p. 216

10) 24:60, I. Mendelsohn, "The Family in the Ancient Near East," The Biblical Archaeologist, XI, May 1948, p. 40.

일이라든가 個人的 理想的인 선택 基準 같은 것은 점차 무시를 당하게 되었으며, 家庭 全體와 門中의 關心事가 되었다¹¹⁾.

그러므로 文化를 保存하기 위해서나 어떠한 外部의 侵害을 막기 위해서는 近親間의 結婚 같은 것이 古代 社會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現象이었음을 아브라함(20:12이나 나홀(11:27~29), 이삭(24:3·48·67), 야곱(28:1~2, 29:18~30)의 경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히브리인의 아내는 항상 人間으로서의 待遇를 받았기”¹²⁾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 자신도 마호멧교의 詩인이 말하는 것처럼, “人類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아무 존경도 남기지 않고 단지 아이들을 낳은 道具에 不過하다”는 생각은 決코 하지 않았다. 또한 이와 關聯해서 누우지(Nuzi)에 있어서의 女子의 位置를 살펴 볼 때, 아주 재미 있는 現象이 있다. 누우지 문서에 依하면 암미네라는 여자는 미타니 제국(the Mitanni Empire)의 사우샤탈(Saushattar) 왕으로부터 任命된 有名한 道의 知事였으며, 또 다른 누우지 문서에 依하면 그 都城에서 教育을 가장 많이 받은 이가 서기관이었는데, 그도 亦是 누우지의 한 부인의 종이었던 것을 보면 누우지에서는 女性의 權利가 相當했던 것을 알 수 있다¹³⁾.

물론 남자는 自己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女子의 부모와 交涉할 때에 特別한 선물(mohar, 34:12, 24:53)을 준 사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女子를 산다는 意味는 아니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權利와 特典을 가지고 있었기¹⁴⁾ 때문에 아내는 장막이나 居할 곳(24:67, 31:33)과 선물(34:12)이나 여중(16:1~8, 24:61, 29:24~29)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男便의 所有에서 利權을 取했던(31:16) 것이다. 그러므로 히브리 社會에 있어서는 男便이 아내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음은 分明

11) L. Köhler, Hebrew Man, p. 77.

12) D. R. Mace, Hebrew Marriage, p. 186.

13) J. Pedersen, Israel, I - II, p. 61.

14) C. H. Goldon, Adventures in the Nearest East, p. 181.

15) D. R. Mace, Hebrew Marriage, p. 61.

한 事實이며(3:16), 아내는 男便에게 順服하는데 異議가 없었던 것이다. 모든 것은 男便이 中心이었으며¹⁵⁾ 아내는 물론 그의 男便과 完全히 結合되어 있어야 했으며, 아내는 또한 結婚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男便에게 屬해 있어야 했다.

創世記 記事를 보면, 性과 子女 生産의 問題 사이에 相互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으나, 그렇다고 子女 生産이 單純히 夫婦의 性的 交際에만 依支한다고도 말하지 않으며, 부모가 반드시 子女를 任意로 保存할 能力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어퍼(Otto Piper) 교수는 이 點에 對한 聖經的 見解를 明白히 밝히고 있다. “자녀 생산은 성적 결합이 그 目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祝福이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1:28, 9:1)고 하신 말씀을 마치, 사람이 生命을 創造할 힘이 있는 것처럼 人間을 向한 하나님의 命令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다만 이 밖의 다른 귀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1:22, 9:7)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祝福인 것이다¹⁶⁾.

히브리 社會에서는 아들을 낳은 아내라야 尊敬을 받았다. 만일 그에게 아들이 없다면 그는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어야 했고 더구나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不幸한 일이거나(11:30), 부끄러운 일(30:23)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恩惠가 끊어진 증거로 보았다(16:2, 29:31, 30:1~2). 왜냐 하면, 子女를 하나님의 祝福의 선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와도 그렇게 생각했고(4:1) 사라(17:19), 아비멜렉의 가정(20:17), 리브가(25:21), 레아(29:31), 라헬(30:22~24), 야곱(33:5) 및 야곱의 祝福(49:25)에 나타난 내용이 모두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子女를 낳는 것은 尊敬의 對象이 될 뿐만 아니라 아내로서 結婚의 義務를 다하는 根本的인 行動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아내는 子女를 낳음으로써 비로소 自己의 權利를 主張할 수 있었다. 하므라비 法典을

16) J. Pedersen, Israel, I - II, p. 70.

17) O. A. Piper, The Christian Interpretation of Sex, pp. 50~51.

보면 자녀가 없는 부인이 죽으면 男便이 그 부인을 위해서 지불한 돈이나 物品을 그 부인의 아버지가 그 男便에게 도로 지불해야 할 責任이 있었다¹⁸⁾.

히브리 社會에 있어서 家庭의 幸福이란 자녀를 낳는 부인과의 一夫一妻 主義에 있었다. 그러나, 만일 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했 다던가, 딸만 낳았다면 그 부인의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求해 주어야 했는데, 주로 그의 侍女 중에서 바쳤던 것이다(16:2, 30:3, 4-9). 그러므로 一夫多妻 主義가 처음에는 後孫을 얻기 위해서 생겨난 것 같으나, 점차 사람의 情慾이 作用한 사실도 否認할 수 없게 되었다(4:19, 26:34~35). 그러나 우리가 分明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본 뜻은 一夫一妻 主義에 있었다는 것이다(1:27, 2:24). 경건치 못하게 두 아내를 取한 者는 라멕이 그 最初였으며, 종종 문제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같은 族長들이 여러 아내를 取한 事實이지만, 그렇다고 多妻主義에 하나님의 許諾이나 福福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왜냐 하면 創世記 記事가 이들을 가리켜 罪가 없다고 하지도 않으며,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恩惠로 容納되었을 뿐이라고 하기 때문이다¹⁹⁾. 그러므로 一夫多妻 主義는 첫째 분쟁을 일으키고, 둘째 女子의 人權을 褫하며, 女子를 다만 男子의 情慾의 道具로 삼았기 때문에 그 結果는 아주 悲慘하였다.

히브리 社會에서 가장 貴중한 일 중의 하나는 家族單位가 다른 社會에서 보다는 훨씬 緊密한 關聯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結婚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定하신 것이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家庭은 男便과 아내와 子女들로서 相互 密接한 關聯性을 가진 單位인 것이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집안의 주인인 동시에 守護者이므로 子女들을 養育할 義務와 權利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權利가 어느 程度였는지는 잘 알

18) Paragraph 1630. J. B. Pritchar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 173

19) R. L. Harris, Inspiration and Canonicity of the Bible, p. 124.

수 없으나 소돔 사람들이 롯을 찾아 온 손님들을 向하여 不當한 要求를 할 때에, 自己의 두 딸을 내어 주겠다(19:8)고 말한 사실이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준비한(22:9~10) 사실, 유다가 不義한 關係를 가진 自己의 자부 다말을 불태우라고 命令한(38:24) 사실, 루우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만일 約束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여도 無關하다(42:37)고 한 사실 등은 그 結果를 우리가 본 일은 없으나, 한 가지 分明한 事實은 아버지의 權威가 대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부를 求하는 일도 一般的으로 아버지의 責任에 屬해 있었다(24:2ff, 28:1ff, 38:6).

히브리 社會에 있어서 女子가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은 女性의 高貴한 地位로 認定되었으며, 어머니가 됨으로 비로소 그 家庭의 位置를 維持하고 生을 즐길 있었다. 히브리 사람들의 유아는 어머니에게 屬하였으며, 養育도 어머니에게 責任이 있었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이름도 아버지가 짓는 경우보다 어머니가 짓는 경우가 많았다. 구약에 나타난 예만 보아도, 46회 중에 28회는 어머니가 지었고, 아버지가 지은 예는 18회 뿐이다²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育兒 問題를 살펴 본다면, 一般的으론 어머니의 母乳를 아이들에게 먹이며 特殊한 경우에만 乳母가 젖을 먹이게 된다(35:8). 家庭에 있어서 어머니의 位置는 남편의 權威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子女들을 돌보고 감독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히브리 社會에 있어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얼마간 큰 特權에 屬하는 일이란 것은 여종의 경우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만일 여종이 주인의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낳지 못한 여 주인을 褫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16:4~5).

딸아이들은 젖을 떼고 난 후에도 어머니나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의 지도를 받았으며 사내 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라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를 도우며 바깥 일을 배우게 된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자연히 부모의 말과 行爲를 따르며 본을 받는다. 그들은 家族 사

20) L. Köhler, Hebrew Man, p. 34.

이에 秘密이 없으며 식구끼리 障壁을 두고 지나다던가, 혼자 지날 수 있는 施設이나 制度도 없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行動을 잘 관찰하고 따르기 마련이었다. 그러므로 히브리 子女들은 스스로의 活動이나 취미를 위해서는 時間을 가지지 못했으며, 家庭의 일을 도우면서 자라났던 것이다. 이제 그 實例를 살펴 본다면, 리브가가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했던 일(24:16), 라헬이 양떼에게 물을 먹여야 했던 일(29:6),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그의 형들이 지나는 形便을 보러가야 했던 일(37:13~14)들이며, 結婚한 아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의 집에서 한 食口 노릇을 해야 했던 일, 노아의 아들들이 結婚을 한 후에도 노아의 食口로 간주되었던 일(7:1), 야곱의 열두 아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모두 아버지의 집에 屬해 있었던 사실(46:31, 47:12) 등은 다 히브리 사람들의 家族 制度를 잘 說明해 주는 동시에 家族의 一員으로서의 個人의 位置를 잘 表現하고 있다. 아버지의 財産은 大部分이 長子에게 相續되었으며(24:36, 25:5), 여종의 아들은 적은 財産을 물려 받는데 不過했다(25:6). 古代 社會에서는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들은 社會的인 理由와 宗教的인 理由로 아들을 가져야 했다²¹⁾. 그러므로 누구든지 自己의 親 아들이 없을 때는 養子를 세워야 했는데, 養子は 보통 親戚 중에서 세웠다. 그러나 養子가 된 후에라도 그의 父母에게서 親子息이 나게 되면 그 자리를 물려나야 했다는 사실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경우에서 찾아 볼 수 있다(15:2~4). 아브라함 자신은 親 子女를 가질 希望이 없었지만, 엘리에셀을 그의 後嗣로 생각하게 되었다. 엘리에셀은 아마 “자기 집 모든 所有를 맡은 늙은 종”(24:2)인 것 같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當時의 一般的 慣習을 따라 法的으로 이 信實한 종을 養子로 삼은 듯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종)이 너의 後嗣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後嗣가 되리라(15:4)”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엘리에셀이 法的으로 成立된 養子라면 어떻게 그 權利가 취소될

21) C. H. Gordon, *Adventures in the Nearest East*. p. 181.

수 있었을까? 하고 疑問을 일으키지만 이에 對한 解答은 Nuzi 土書板이 解明해 주고 있다. Nuzi의 慣習을 살펴 보면 養子의 任務는 養父母가 살아 있을 동안은 잘 奉養해야 하며, 돌아간 後에는 埋葬하는 일까지 責任져야 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責任을 遂行하여야 養父母의 遺産을 相續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 養父母가 養子를 세우고 난 後에라도 親 아들을 낳게 된다면 養子는 應당 그에게 長子의 相續權을 양보해야 했다²²⁾. 또 다른 Nuzi 土書板에는 야곱과 라반의 關係(29:31)에 對해서 잘 說明해 주고 있는데 라반이 야곱을 사위로 삼을 때는 親 아들이 없었으므로 야곱을 아들로 삼고 자기의 두 딸을 아내로 준 것 같다.

한편 Nuzi에 나타난 Nashwi란 사람이 養子를 세운 法을 引用해 본다면 Nashwi가 Puh-shenni의 아들 Wullu를 養子로 삼은 경우, Nashwi가 살아 있을 동안은 Wullu가 Nashwi의 衣食을 담당하고, Nashwi가 죽으면 그 後嗣가 된다. 그러나 만일 Nashwi가 친 아들을 가지게 된다면 財産은 Wullu와 같이 나누어야 하며, Nashwi의 神들도 Nashwi의 親 아들이 모셔야 하나, 만일 親 아들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Wullu가 神들을 모셔야 한다. 그리고 Nashwi는 그의 딸 Nuhuya를 Wullu에게 주어야 하나 만일 Wullu가 다른 아내를 얻게 된다면 Nashwi는 自己의 土地와 建物を 잃게 된다²³⁾.

이와 같이 우리들은 土書板을 참고로 하여 라반과 야곱과의 關係를 살펴 볼 때에, 라반이 親 아들을 얻은 後에는(30:35) 야곱에 對한 態度가 突變한 理由를 잘 알 수 있으며, 라헬이 아버지 집의 偶像(teraphim)을 훔친 理由라든가, 라반이 그것을 왜 그렇게 극진히 찾으려고 했던가를 充分히 알 수 있다. 또한 라반이 야곱을 향하여,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31:43)고 한 사

22) C. H. Gordon, “Biblical Customs and the Nuzi Tablets”, *The Biblical Archaeologist*, II (Feb., 1940) 2ff.

23) J. B. Pritchard, *Ancient Near Eastern Text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p. 219~220.

실을 보아도 라반은 族長的 아버지로서 야곱을 비롯한 그의 全家 族들에게 權利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²⁴⁾.

히브리 族長的 社會는 血族과 姻戚 關係로 構成되었을 뿐 아니라, 相互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와 그의 子女들로 構成되었으며, 비록 자녀들이 다 結婚한 後라도 “아버지의 집”에 屬해 있었다(31:14-30, 41:51, 46:31).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beyth ab)은 廣義의 뜻을 包含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가 없어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리워 졌으며(12:1, 20:13, 24:7·23·38·40, 50:8·22), 個體의 家庭 보다 더 큰 集團을 말할 때도 역시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다. 그런고로 누구나 아버지의 집에서는 安全과 도움을 얻었으며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安全과 보호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20:14, 24:13). 히브리 사람들의 集團은 天幕 生活을 하는 可動的인 集團(12:8~9, 13:3·12, 26:25, 33:19, 35:21)인 동시에 親戚들이 모인 集團이기 때문에 家族과 家族間에는 緊密한 紐帶가 있었으며²⁵⁾, 親戚 關係도 따지고 보면 結婚 關係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34:3~10) 親戚과 姻戚을 通하여 피차 위로를 얻으며 안전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히브리인들의 社會는 相互 緊密한 關係를 가진 동시에 피차간에 責任이 있었다. 그러나 그 責任은 各 個人에게 해당되는 獨特한 責任이었다. 보통 다른 一般 社會에서는 個人과 이웃의 義務가 雙方이 共同的으로 責任져야 할 平行線上의 關係로 表示될 수 있으나 히브리 社會에 있어서의 甲과 乙이란 兩者間의 責任 關係는 하나님의 觀察아래 있는 三角 關係로 表示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社會的인 犯罪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던 것이다(4:8~12). 또한 婚期에 이른 男女의 結婚 問題도 그들 자신들에 局限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關心을 가지고 섭리하시며 간섭하

24) G. E. Wright, *Biblical Archaeology*, p. 44.

25) J. Pedersen. *Israel*, I - II, p. 52.

시는 反面에(6:1~3),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하였을 경우도 그 罪가 반드시 그 두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對한 犯罪가 되었던 것이다(39:9, 42:21, 44:16, 50:19).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直接 하나님께서 지켜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있는 것 처럼 생각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自己 個人들의 일 뿐만 아니라, 社會의 共同 責任을 생각해야 한다. 이와 같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親舊를 위해서나 그 밖에 다른 어떤 事由로 하나님 앞에 罪를 犯하였다더라도 그는 追放者가 되었으며, 放浪者나 流離者로서 이웃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었고, 犯罪者의 社會를 攪亂시키는 孤獨의 詛呪(4:10~15)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II. 社會의 怪異한 事件들

現代人の 눈으로 보면, 族長 社會에는 怪異한 일들이 많았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내려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리켜 누이라고(12:10) 한 사실은 비단 한번 뿐이 아니라, 그 後에도 있었던 事實이다(20:13). 사실 따지고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異腹 누이었으니(20:12) 全然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아내였다는 點에서는 반쯤 참이라고나 할까? 이러한 일들은 비단 아브라함에게서 뿐만 아니라, 이삭의 경우도 이와 같은 方法으로 리브가를 누이라고 불렀으니(29:9) 왜 그렇게 하였을까? 물론 그것은 속이는 일 이었지만, 古代 社會에 있었던 일이며, Nuzi 近處에 살고 있던 Hurrian 사람들이 누이라고 불렀던 사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일이다²⁶⁾.

26) E. A. Speiser, "New Kirkuk Documents Relating to Family Laws" *The Annual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X, p. 60; cf. C. H. Gordon, "Fatriarchy in the Old Testamen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54, p. 226.

이와 같이 Nuzi 百姓들은 強直한 兄權主義(Fratriarchy)의 概念을 가지고²⁷⁾ 있었으며, 아버지가 別世하게 되면 대개 長子가 집안의 主管者가 되었다. 그리하여 누이를 包含한 全家族을 통솔할 權勢를 가지고 있었다. 아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자기들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의 아내를 보다 安全하게 保護할 目的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잘 通用이 되었으나, 애굽이나 남부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通用되지 못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取한 行動이 오늘날에도 許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當時의 特殊한 地域에서는 通用되었던 慣習임에 틀림 없다.

族長 時代에 있어서 또 하나의 異常한 일은 長子權을 兄弟간에 사고 파는 일이었다. 그 實例는 야곱이 에세에게서 長子權을 산 일인데(25:31·32·33·34, 27:36), 이 事實은 相續權을 가진 初生者의 位置를 說明하여 준다코도 볼 수 있으며, Nuzi 土書板에도 이와 비슷한 實例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Hibishua”의 아들 Kurpozah는 그의 兄 Tupkitillaon의 所有인 林野를 羊 세 마리와 바꾼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林野는 자기 生計의 가장 緊要한 물건인 동시에 極甚한 困境 곧 굶주림을 면하기 위한 目的에서 되어진 일인 것 같다²⁸⁾고 하는 사실이다.

長子權을 가진 初生子는 대개 아버지의 特別한 祝福을 받았으며(27:19·27), 이 祝福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代理者로서 비는 祝福인 동시에 J. Pedersen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特性으로 說明하고 있다. 첫째 祝福은 子女가 昌盛하는 것이요(1:28, 9:1, 12:2, 26:24, 28:3·14, 35:11, 48:4·19), 둘째 祝福은 所有가 많아지는 것이며(13:6, 24:35), 셋째 祝福은 怨讎를 이기는 祝福(27:29, 49:8~12, 22~26)이었다²⁹⁾. 이러한 祝福은 重要할 뿐만 아니라,

27) Speiser, 同上, pp. 58~61; Gordon, 同上, pp. 225~231.

28) C. H. Gordon, Adventures in the Nearest East, p. 119; cf. Nuzi tablet No. 204.

29) J. Pedersen. Israel, I - II, p. 204.

變更할 수도 없는 祝福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야곱이 속인 줄도 모르고 에세인 출만 알고 祝福한 다음에 두려워서 떨었던 것이다(27:33~40). 이와 같은 慣習은 Nuzi 土書板에도 잘 表現되었는데 그 例를 들면 Nuzi의 한 法廷에서 行한 口頭上의 祝福도 効力이 있었다는 事實이다³⁰⁾.

야곱이 臨終時에 유다를 特別히 祝福하여 그의 死後에 있어서 자기 家族의 長으로 삼았다. 그 理由는 長子 루우벤이 自己의 失手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35:22, 49:4, 대하 5:1). 이제 그 祝福의 內容을 살펴 보면, 야곱은 말하기를 “유다야 너는 네 兄弟의 讚頌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르다”(49:8)라고 한 事實이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말을 古代 文獻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族長 Semri는 長子가 아니었음에도 그의 아버지가 그를 만들었던 것이다³¹⁾. 또 다른 어떤 土書板에도 “나의 아버지 Huya는 病이 들어 침상에 누워서 나의 손을 잡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큰 아들들은 아내들을 취하였는데 너는 아내가 없으니 내가 Zululishtar를 너의 아내로 주노라³²⁾”라고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말들을 살펴 볼 때에, 그 內容이 야곱의 祝福과 비슷한 點들이 많으니, 첫째는 口頭의 遺言이요, 둘째는 法的 効力을 가졌다는 點이며, 셋째는 죽어가는 아버지가 아들의 位置를 特殊하게 만들었다는 事實이다³³⁾.

以上으로서 우리는 聖經 記事와 Nuzi 本文이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볼 때에 創世記의 怪異한 일들이 다른 곳에서는 全然 찾아 볼 수 없는 사건들이라기 보다는 그 當時 상당히 널리 퍼져있던 風俗임을 알 수 있다.

人類의 歷史는 따지고 보면 人間의 罪惡相에 對한 記錄이란 點

30) G. E. Wright, Biblical Archaeology, p. 44.

31) R. T. Ocallaham, “Historical Parallels to Patriarchal Social Customs”. Catholic Bible Quarterly, VI, p. 401.

32) Gordon, The Biblical Archaeologist, III, p. 8.

33) Gordon, 同上.

에서 創世記에 나타난 사람들도 그 例外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性的 變態는 벌써 洪水以前 사람에게 나타났다(4:19). 소돔이 滅亡한 후 롯의 두 딸들은 詭計를 부려서까지 자기들의 아버지를 性的 對象으로 삼았던 것이다. 두 딸이 자기들의 아버지를 술이 醉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만일 자기들의 아버지가 精神이 똑똑한 것 같으면, 자기들의 要請이 受諾되지 않을 줄 알고 행한 것이라고 생각된다³⁴⁾. 이와 같은 不道德한 일은 자기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子孫을 保存한다는 名分을 세우려고 하였으나(19:32~38), 이것은 어디까지나 脫線된 性交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은 古代社會의 婦女들이 얼마나 子女를 가지기를 願했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유다의 長子 엘이 다말이라는 아내를 남기고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次子 오난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다말을 취하여 엘을 위해 아들을 낳도록 命을 받았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慣習이 Nuzi 土書板에도 記錄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위해서 新婦를 求할 때에 만일 그 아들이 죽게 되면 新婦는 다른 아들과 반드시 結婚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³⁵⁾. 또 한편 1952년 Ugar의 王宮에서 發見된 Akkadia 文書를 살펴 본다면 Ugarit의 王 Arihalba가 아들이 없었으므로 Nigmepa라는 동생이 王位를 繼承하고 兄嫂까지 娶한 사실이 있다³⁶⁾.

다말이 생각하기는 유다의 세째 아들인 셀라가 自己 男便이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유다를 속이므로서 그를 通하여 後嗣를 얻으려고 하였다. 이것은 怪異한 일이지말 다말의 處地에서 볼 때는 그 近處의 風俗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헷 族屬의 法典을 引用하여 본다면, “萬一 男子가 아내를 두고 죽게 되면 그 兄弟 중에서 娶하여야 하며, 兄弟도 없을 때는 그의 아

34) D. R. Mace, Hebrew Marriage, p. 196.

35) C. H. Gordon, The Biblical Archaeologist, III, p. 10.

36) M. Tsevat, "Marriage and Monarchical Legitimacy in Ugarit and Israel", Journal of Semitic Studies III, p. 237.

버지(媾父)가 娶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그의 아버지도 죽고 없을 때에는 그의 조카 중의 한 사람이 그의 叔母를 아내로 娶해야 했지만, 이 일 때문에 形罰을 받은 일은 없었다³⁷⁾. 그러므로 懇切히 所願한 것은 오직 後嗣를 가질려는 한 가지 마음으로 行動을 取하였기 때문에 비록 合理的인 方法은 아니었지만 自己의 行動을 正當化한 것임엔 틀림 없다. 그러나 性的 誤用은 社會의 으로도 不當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犯罪가 되며, 終局的으로는 하나님과의 交際가 끊어지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다.

所謂 聖經이 말하는 男女 平等의 根據는 兩者가 다 하나님의 形狀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과 全人類가 같은 祖上一 아담과 하와—을 가졌다는 點에 있다(1:27, 행 17:26). 그러나 男女 사이나 人種 사이에 區別까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創世記의 族譜에 女子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라던가(5:10), 一夫多妻 主義가 男女의 平等을 意味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男女間의 生理的 差異나 職務의 區別은 勿論 하나님의 創造의 原理 속에 包含되지만(2:15~25), 그렇다고 반드시 優劣로 差別이 워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男便을 思慕하고 男便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3:16)고 하셨지만, 그 後에도 女子는 자기 자신의 自由를 누릴 수 있었으며, 子女들의 이름까지 지을 수 있는 權利를 가졌던 것으로 보아(4:1) 女子가 次코 人間 以下에 屬했다고는 할 수 없다. 女子로서 男子의 犧牲이 된 사람은 라멕의 두 아내들이었으나(4:19), 이 女子들의 犠牲이 반드시 男子에게만 그 責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女子에게도 그 責任이 있었음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19:30~38, 39:7~18). 또한 女子란 肉體的으로나 精神的으로 바깥의 험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알맞지 않았으므로 家庭에서 活動하는 것이 主 任務요, 그

37) J. Pritchard,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 296.

役翻이었다. 그러나 女性은 性格의 오프나 職責上 오프 때르는 男性들의 놀림 꺼리로 취급되는 일이 있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本來的인 뜻에서 벗어난 것이며, 세월이 흐름에 따라 女性의 位置가 轉落된 것에 不遇하다.

그러므로 創世記에 表現된 말씀의 內容을 살펴 본다면, 本來부터 劣等한 民族이라든지 無價値한 族屬이거나 特別히 優秀한 種族이란 뜻은 없었다고 한다³⁸⁾. 그러나 人類가 두 系列로 나누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가인의 系列(5:16~24)과 아벨과 셋의 系列(4:25~5:32), 洪水로 말미암아 滅亡한 系列과 노아의 後系 야벳과 함의 系列(10:1~20)과 셈의 系列(10:21~30, 11:10~32), 이스라엘의 系列(25:12~18)과 이삭의 系列(25:19~26), 에서의 系列(36:9~24)과 야곱의 系列(35:22~26, 46:8~27)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人類社會는 처음부터 두 그루우프가 있었던 것이다. 그 중 하나는 하나님의 恩寵을 입은 그루우프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루우프이다. 이러한 分裂의 原因은 人間에게 있었으니, 가인과 그 後系(4:8~24), 洪水以前의 百姓들(6:1~7), 함의 後孫(9:22~27), 시날 平地의 百姓(11:1~9), 에서의 後孫(25:29~34)들의 凶惡한 犯罪에서 그 原因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原因 중의 하나는 父母들의 片愛라고 볼 수 있으나 함의 系列은 詛呪를 받았으나 야벳의 後孫과 셈의 後孫들은 祝福을 받았는데 그 중에도 特別히 셈의 後孫들이 더 큰 祝福을 누렸다는 사실(9:26~27)은 아마도 셈이 長子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5:32, 6:10, 9:18, 10:21), 야곱이 그의 형 에서보다 어머니 리브가에게 더 큰 사랑을 받은 것도 그 實例이다(27:5~29). 그러나 選民이 存續했던 가장 重要한 原因은 하나님의 選擇에 있었던 것이다(7:8~8:1, 9:26, 17:19~21, 25:23). 그러므로 人間들은 深奧한 하나님의 選擇 原理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人間을 差別待遇하는 잘못된 過誤를 犯했던 것이다.

38) W. Eichrodt, Man in the Old Testament, p. 16.

改革主義 基督教哲學의 必要性

〈目 次〉

- | | |
|----------------|-------------------|
| I. 問題點 | V. 哲學과 日常 經驗 |
| II. 哲學과 宗教 | VI. 哲學의 出發點과 그 方向 |
| III. 哲學과 一般 信者 | VII. 哲學과 實在의 意義性格 |
| IV. 哲學과 聖經 | VIII. 哲學에 있어서의 反位 |

I. 問題點

哲學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哲學이란 말은 두 가지 意味로 使用되고 있다. 첫째는, 플라톤(P'laton)이나 칸트(Kant)의 哲學에 있어서와 같이 그들의 哲學的 體系를 뜻하는데 그들은 이미 오래 전에 죽었고 그들의 哲學的 活動도 由止되었지만 그들의 哲學體系는 지금도 存在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哲學的 活動이나 哲學하는 行爲를 意味하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現世의 生에 局限된 人間 活動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이 둘째 意味의 哲學에 있어서 哲學者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哲學한다는 것의 참된 뜻을 물어 본다면 哲學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에 從事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먹는 일이라든가, 자는 일을 가리켜 哲學하는 일이라고는 하지 않으며, 비록 裁斷師가 옷을 만드는 行爲가 생각하는 行爲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哲學하는 行爲는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哲學的으로 活動한다는 것은 어떠한 特別한 形態의 科學的인 思索에 從事하는 것을 意味한다.

이런 意味에서 우리들은 哲學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앞서 科學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對答해야 할 것이다. 科學이나 哲學은 어떤 特殊한 形態의 認識 活動이며, 科學的으로 思考한다는 것은 分析的으로 思考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科學的 活動은 分析的인 活動인 동시에 對照的이며, 組織的인 思考의 活動